

아동학대 증가세...광주시, 공공 보호체계 강화

지난해 신고 1010건 중 743건 '학대'...전년비 17% 늘어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1곳·쉼터 3곳 확충 위탁가정 양육수당 인상·전담공무원 확대 등

잠처럼 줄지 않는 '아동학대'를 근절을 위해 주변 관심 등 사회안전망과 공공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코로나 초기에 비해 지난해 대면 수업이 늘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을 중시,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설 확보를 비롯한 공공 보호체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010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아동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43건(73.6%)이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27건, 신체적 학대 115건, 방임 43건, 중폭 326건 등이다. 신고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20년 신고건수 858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학대 행위자 조치 결과는 모니터링 53.4%, 고소·고발 45% 등이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139건, 1089건이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신고건수가 줄었다가, 지난해 등교수업이 늘어나고 전 국민이

공분했던 '정인이 사건' 영향 등으로 신고 의무자와 시민의 신고 등이 다시 늘어나면서 기존 수준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공적 보호 강화를 위해 즉각 분리 보호시설과 가정형 보호 확대,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 조기발견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시민의식 개선에 나선다. 시는 이달 내로 기존 영아일시보호소 1곳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2곳에 더해 이달 내로 일시보호소 1곳과 남구, 북구에 쉼터 1곳씩을 확충한다. 동구에 개소할 일시보호시설(지하 1층, 지상 3층)은 종전 영아만을 전담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남매도 같은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 남녀 27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숙소와 식당, 놀이공간, 심리치료실과 도서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남구(여아)·북구(남아)에 정원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1곳씩 설치해 이달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광산구도 오는 7월 쉼터를 개소한다. 시는 또 올해부터 위탁가정 아동 320여명(250세대)의 양육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인상하고, 2세 이하-경계선지능 아동 등 위기 아동을 위한 전문위탁가정 12곳을 추가 확보했다. 시는 24시간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보호아동의 양육계획을 점검하는 아동보호전문요원도 확충한다. 광범미 광주시 여성가족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면서 "학대 받는 아이들이 더 큰 불행을 겪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소년 기관 산학협력회의 광주대, 13개 기관 온라인 개최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는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역 청소년 기관 13곳과 비대면 온라인 산학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광주대는 이번 산학협력회의를 통해 지난해 진행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학교 교과과정-비교과과정, 현장실습을 통한 인력양성, 취업 등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민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장은 "우리가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 이바지하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학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산학협력 기관들의 지지와 도움이 큰 만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편히 쉬세요 11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고(故) 배은심 여사의 영결식에서 시민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 우울증' 30대가 위험하다

'우울 위험' 30대女·'극단선택 생각' 30대男 최다

'코로나19' 발생 2년 동안 국민들의 자살생각 비율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위험군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5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자살생각 비율은 9.7%였으나 2021년 12월에는 13.6%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12월)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18.9%로 조사됐는데 이는 최저치였던 지난해 1분기(3월) 22.8%에서 3.9%포인트 감소했지만, 지난해 3분기(9월) 18.5%보다는 0.4%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분기별(3·6·9·12월)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조사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와 심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다. 12월 30대 우울 점수는 6.4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60대 이상(4.2점)의 1.5배다. 우울 위험군 비율은 27.8%로 60대(13.8%)의 2배 수준이다. 여성의 우울 점수는 5.7점으로, 남성의 4.4점보다 높았다. 우울 위험군 비율도 여성이 23.1%, 남성은 14.9%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여성의 우울 점수(7.0점)와 우울 위험군 비율(33.0%)은 모든 성별과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은 30대 남성이 22.4%로 전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20대 여성(17.3%)과 20대 남성(17.2%) 순으로 높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교육 메타버스 구축...정책·우수사례 홍보

광주교육청이 가상세계를 통해 교육의 현황과 정책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광주교육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세계)'를 구축·운영한다. '광주교육 메타버스'에는 5·18민주화운동 추모탑과 무등산 입석대를 배경으로 실제 교육청 청사 외형을 본뜬 가상세계인 민주관(본관)과 시민관(별관)이 구현돼 있다. 가상세계의 건물 내부에는 혁신 교실·교육 사랑방·홍보 전시실·체험실 등이 배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육 메타버스를 통해 주요 정책과 학교 현장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캐릭터를 골라 가상세계를 이동하며 광주교육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벤트·인증샷 찍기·OX 퀴즈다리 건너기·레이싱 게임 등을 즐기고 다른 이용자와 대화도 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메타버스를 통해 광주교육 홍보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고 교육적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홈트' 운동도구 대여서비스 동구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

광주 동구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 일상 시대에 맞춰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기초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족 운동도구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1·2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는 필라테스 링, 폼롤러 등 소도구와 스파이크 볼 등 아이들과 놀이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소도구를 대여한다.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062-608-3953)로 먼저 예약하고,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2~4주간 대여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구급 출동 늘어...코로나 5846명 이송

지난해 하루 평균 192건 출동...화재 2건 꼴 발생

지난해 광주에서 화재는 줄고, 구급 출동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모두 30만5249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화재 743건, 구조 5237건, 구급 7만142건 등 8만9132건 현장 출동이 이뤄졌다. 화재, 인명피해, 구조활동은 전년보다 각각 15.8%, 15.6%, 6.0% 감소했다. 반면 구급 활동은 8.5%, 생활안전 활동 9.2%, 전체 신고 접수는 5.0% 증가했다. 화재는 하루 평균 2건꼴로 발생해 인명 27명, 재산 201억 9800만원 등 피해를 냈다. 산업단지 내 화재로 재산 피해액이 전년(33억150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370건(49.8%), 전기적 요인 199건(26.8%), 기계적 요인 80건(10.8%) 순이었다. 구급 출동은 하루 평균 192건이었으며 질병, 추락 등 사고, 교통사고 등이 많았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확진자 1675명, 의심 환자 3733명, 학교 내 유증상자와 해외 입국자 416명 등 5846명을 병원과 격리시설로 이송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 되십시오!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자세로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열어가겠습니다.

※ 임중도원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백성들에게 '인'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임무는 죽은 뒤에나 그만두어야 하니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